

2018

사순절 묵상집



권두언

“아멘, 감사합니다.”

이영길 목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16)

지난 2007년부터 저희 교회가 목상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니 올해 12권째 목상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영락 대학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중 목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매일 자신이 목상한 성경 귀절과 함께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글을 띄우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고는 자주 어느 친구가 답신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곤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한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을 현대 감각으로 풀어서 ‘뱃세지’라는 책을 펴 내셔서 기독교계에 크게 공헌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목사 친구는 매일 기쁨으로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주 “아멘, 감사합니다” 외치고, 한 친구는 가끔 가다가 ‘한국의 유진 피터슨’ 이라고 불러 주니 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모두는 사순절 기간 매일 한 분 한 분의 글을 읽으며 외쳤을 줄 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한국의 아무개’ 라는 칭호도 붙여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자로 발간하다 보니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화답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보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멘, 감사합니다” 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때 더 멋지고 새로운 신앙 이야기라 창조되지 않을까요? 겨자씨를 심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도 수고하신 홍보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멍에를 주님과 함께

김경희 권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9-30)

내가 일하는 바로 앞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다. 거기에는 손님이 보내 온 “thank you” 카드와 “해바라기처럼 빛을 바라보며 사는 사랑하는 엄마께” 라는 빛나가 해바라기와 함께 보내온 메모가 은은한 향기처럼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 메모 뒤에서 내가 오래 전에 붙여 두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읽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을 느낀다. 그리고 눈에 익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 내 려가는데 갑자기 단어 하나 하나가 크게 다가오면서 나의 심장을 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 11:28-30)

아침마다 옷장 안에서 기도로 풀어 놓았던 나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 보따리를 한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받아 주셨고 주님은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다.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삶의 짐을 주님은 항상 덜어 주셨다. 그런데 난 그 주님의 멍에를 생각해 본적도 없거니와 그 멍에를 지려는 생각은 더더욱 해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주님으로부터 바른 제자의 도를 배우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살아가는 길이 더 좁고 험한 길 같을 때가 있었다. 그것을 나는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착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생각의 순위가 뒤 바뀐 것을 지적하신다. 예수님으로부터의 바른 배움이 없이 나의 생각으로 내가 마땅하게 생각했던 신앙에 근거한 행동들은 나 자신을 속일 뿐이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주님이 주신 법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가? 편안하고 은혜로우면도 즐거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어지기가 쉬워지고 더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멍에를 지듯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멍에를 메는 것은 분명하고 통스러울 텐데 쉽고 가볍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나의 멍에의 다른 부분을 같이 메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늘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진리는 오늘 나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켰다. 지금까지 위로, 사랑, 은혜 등 좋은 것을 받기에만 급급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울음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의 이 소원을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씨앗으로 심는다. 이것이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긴 변화의 여정을 인내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아침마다 나의 짐 만 내려놓고 “아멘” 하고 급히 돌아서 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시며 주님께 서는 얼마나 오늘을 기다리셨을까?

기도: 주님, 오늘 제가 작은 소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바람을 이기고 가라지를 견딜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4:24)

Pennsylvania의 Pittsburg태생인 Annie Dillard시인의 시구절 중에,
어두운 바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 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시인의 믿음생활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시인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고 시를 읽는 중에 나에게 들려오는 은혜의 순간이 grace note처럼 머리를 살짝 건드린 것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4:24)” 의 뜻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바깥에 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필요로 한다.

걸어 왔던 세월들, 어두움을 통해서 헤매었던 시절들, 함께 희락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나날들, 화평, 온유하지 못 했던 과거, 충성, 자비, 양선, 오래 참고 절제하지 못했던 삶,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고 싶다. 불변하는 별빛은 우리들에게 어두움을 요구하지도 필요로 하질 않지만 깊은 새벽이 있기에 찬란한 빛은 여명의 아침을 약속하고 있다.

킬리만자로의 어느 산자락에서 누워 바라보던 황혼 후 쏟아지는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기억한다. 그것은 세상의 별들을 모두 쓸어모아 은하수에다 함께 쏟아 놓은 것 같았다. 풍성하고 신묘막측한 이 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루의 피곤한 사역을 마친 후 풀밭에 누워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 어두움이 다가 오는 지 몰랐다.

기도: 이제는 이 어두움을 통한 사순절의 침묵을 가늠 합니다.
어두움으로 명든 가슴을 어루 만지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약속으로 예비된 순례자의 길을 기도 합니다. 아멘



Very Personal (비밀이에요)

김계숙 권사

2/16(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태복음13:11)

“When my mommy calls, let me talk please!!!” 10 살된 손자 Nathan 이 우리집에서 저녁을 먹고 엄마가 pick up 오기를 기다리며 내게 하는 말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Nathan 답변이 “It’ s a Very PERSONAL.” 이란다.

아니 내가 매주 삼, 사일씩 ride를 줄 때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말해온 녀석이 별안간 “Very PERSONAL” 이라고 말하니 무슨 일이 있었던게 분명하다.

또 우리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혼자 밥상을 받고 밥을 먹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TV program 을 보는데 일상인데, 오늘은 TV를 안 보고, 3년전 총동창회를 Philadelphia 에서 할 때 그곳에서 사온 만화로 그린 책을 - ‘My Papa is a Simple Man’ Dr. Philip Jaisohn: A Life Story (서재필 박사 전기- 우리아빠 서재필 박사 이야기) 읽고 있어 참 신통하다고 생각했다.

또 얼마 동안 책을 읽다가는 싫증이 났는지, TV 옆의 큰 바구니에 쌓여있는 자동차 등 장난감들을 온 방에 널어놓고는 혼자서 주거나 받거나 떠들며 잘 놀고 있었다.

한 시간 쯤 지나서 기다리던 제 엄마 전화가 왔기에 Nathan 을 바꿔 주었다. 엄마한테 “May I watch TV <NOW>?” 라고 묻는다. 엄마가 “NO” 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지... 엄마와 통화 후 “VERY PERSONAL” 이라고 나에게도 ‘비밀’ 이라고 말하던 녀석이 이제는 그 ‘비밀’ 을 내게 털어 놓는다. 얘기인 즉 지난 주에 엄마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NO TV watch for a week> 벌을 받아서 내일 모래까지 TV 를 안 보겠다고 약속했단다.

참 대견하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TV Program 을 안 보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엄마가 있건 없건> 절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TV를 안 보니 좋은 책 읽을 시간도 갖게 되니 더욱 좋았다.

우리가 사순절 40일동안 정화하는 기간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벌’ 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주에 하루를 TV 를 안 보고 자기를 절제하며 수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면 좋겠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일상의 소소한 일로부터 일평생을 좌우할 것만 같은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 가며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에 맞닥뜨리곤 한다. 결정의 기준과 근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럴싸한 모양으로 포장을 해도 그 중심은 언제나 ‘나’ 이기에 내 맘대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일쑤다. 이런 ‘나’ 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 여러 모양으로 벗어지는 갈등과 충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성경지식이 풍부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잘 한다고 해도,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의 존재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성경지식, 기도, 찬양, 봉사로 덮어 씌워져 있을 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나 중심’, ‘내 맘대로’의 삶만 있으니 말이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는 어거스틴이 주 후 407년 Easter Saturday에 설교한 ‘요한일서 강론’의 8번째 단락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Dilige, et quod vis fac. (Love, and do what you will.)’

마음대로 하란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 “사랑하십시오”. 이 짧고 강한 메세지가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부연설명으로 이어지는 문장들과 함께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가 차츰 편안하게 다가왔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실 때, ‘내 맘대로’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조율된 상태일테니까...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실 것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1-3)

꽃꽂이 삶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박두순 시인의 시 ‘사람 우산’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우산>
집에 오는 길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안았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따뜻한 사람 우산이었다.**

얼마전 접하였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위한 우산이었습니다. 귀신들린 여인들 병마로 고생하는 여인들 아픈 것만으로도 서글픈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쏟아 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낮게 하심으로 자기들도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편 병에서 나온 이들은 또 주님을 위한 우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우산이 되었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주님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우산이 되었던 자들에게 더 이상 우산이 필요 없는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새교우반 환영 모임이 어느 교우님택에서 열렸습니다. 그 교우택이 그날에 우산이 되었습니다. 그 교우님택의 우산 아래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한 교우님께서 보스톤에 오신지 몇 달이 지나서 이제야 교회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스톤에 오시기 전에 큰 도시 두 곳에서 사셨는데 그 곳에서 다니던 두 교회가 모두 다 투는 아픔을 치렀다고 새로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펴면 비를 함께 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간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산을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끝이 뼈죽하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산을 펴서 함께 사랑의 공간을 창조하느냐, 아니면 우산을 접어서 무기로 사용하느냐? 이는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우산을 펴십시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우산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우산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삶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2017. 3. 5. 주일 설교문 중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 1)

지난 크리스마스에 차 모 집사님으로부터 노래방 마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저녁, 저희 부부는 어이없어하는 큰아들의 표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드라마 ‘응답하라’에 나왔던 곡들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불렀습니다. 그 때 그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을 때, ‘이정도 했으면 찬양 한 곡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CCM 한 곡을 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천 번을 불러도.’ 고백적인 가사와 감수성 충만한 멜로디로 안 그래도 목이 메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 인자한 모습으로 병자의 얼굴에 손을 대시어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배경영상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러서 차마 그 곡을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속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하고 싶은 것 실컷 한 후에야 저 구석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던 죄책감과 시청각 자료의 도움으로 얼렁뚱땅 느낀 그런 감정들이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으로 그날 밤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저의 초라한 믿음의 증거들이죠.

제가 암송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자 이 말씀 덕분에 제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저의 초라한 믿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지경이지만,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은 죽을 때 까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보혈, 교회, 그리고 집사의 직분

최학수 집사

2/20(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10)

“스승집사.. 여기서 뭐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부부청년부의 집사 한명이 혼자서 성탄절 트리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혼자서 뭐해요? 할 일이 있으면 나랑 같이하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필요.. 제가 우리교회 집사인데요...”

“...”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사인데..” 라는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울리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인데.. 당연히 할일을 하는 건데.. 뭐 그런걸 물어보냐는... 그 친구의 한마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집사’ 라는 직분을 수락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전에 다니던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던 때의 엄청난 (??) 직무들과 부담들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스톤한인교회로 옮기게 되었을 때 저희부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평신도로 교회에서 있는듯 없는듯 지내자.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 수락여부를 묻는 편지에 “NO” 라고 적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집사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써보았을 그런 핑계를 대고 그렇게 현실에서 회피하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핑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별레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와 땀을 쏟으셨는데...’

오히려, ‘귀찮은 일은 싫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며 좋아하는 것만 하고 다닐래요.’ 라는 투정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우리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축복을 이렇게 받기만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천천히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나서 저는 2015년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저의 와이프 최안나 집사가 안수집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간은 2011년 사순절로 돌아옵니다. 저희 부부가 보스톤한인교회 부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 맞은 사순절. 그 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덤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에게 집사의 직분을 깨닫게 해준 그 친구의 아내도 매일 새벽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는 다른 많은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저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회개와 절제의 시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고, 제 삶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결혼 10년 만에 유준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순절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2012년 사순절 묵상집).

매년 사순절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스톤에서 6번의 이사 끝에 지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진급을 하고 더 나은 포지션을 받고, 다시 고난 중에 기도하여 새로운 직장과 연구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저의 삶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후3:13)” 라는 말씀을 붙잡고, 스승 집사의 말처럼 집사로서 당연히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다른 제직분들과 함께 어머니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기도: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하소서. 아멘



살며시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운영자 권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3)

시편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 하리이다”

- 40일동안 ‘굶주림의 시험’ (마태복음 4:4)
- ‘명예의 시험’ (마태복음 4:6)
- ‘권력의 시험’ (마태복음 4:8)

모든 고통과 시련을 독생자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고난, 시련,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셨던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수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의 남은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베푸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소가 되새김질 하듯) 되새겨 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사바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몸에 작은 가지 하나에도 고통을 호소하는데...

예수님께서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 이라면 아버지의 뜻 대로 하옵소서” 하신 말씀 머리 속에 그려봅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괴롭고 힘들지요. 힘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됨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기도: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들의 시험에서 인내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에게는 역만분의 일이라도 순종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림자라도 같이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섭리가 운데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해 주옵소서!
머리 조아려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11)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나갔던 가까운 친구가 잠깐 귀국해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있더군요. 한시간 넘게 신앙 간증을 하더니 불쑥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교회에 안 다녀?
어머님이 권사님 이잖아? 뭐라고 안하셔?

중학교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잔소리를 하셨지요.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죄 많이 짓고 살더라.

한참 각종 사례들을 들어가며 항변했습니다.

재원아!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교회에 나가봐.

결국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저는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지만 친구의 간절한 충고가 계속 마음 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으로 유학 나왔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함께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인생과 신앙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훌륭한데!

멋쩍어 하는 친구와 한참 웃었지요.

보스톤에 와서는 겸손하고 덕망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작년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군요.

우리는 모두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겠지요. 이웃의 신앙은 그 사람의 문제. 부러워 할 필요도 없고 우쭐해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가 한 사람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 내기도 합니다

기도: 주님, 당신이 보여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와 늘 동행해 주세요. 아멘



축복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최정열 집사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8 - 10)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씩 한국에 가면 어머니께서 회를 많이 사 주셨는데, 봄에 한국에 가면 다대포라는 해변가에 저를 데리고 가서서 세꼬시 라는 회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꼬시는 도다리 같은 종류의 조그만 고기를 뼈 채로 썰어서 초장에 찍어 먹는 그런 회인데, 세꼬시를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초장 맛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고기 맛이 나다가 마지막에는 뼈 맛이 나는 감칠맛 나는 그런 회입니다.

살다 보면 남들을 험담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남들을 험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초장 맛 같은 맛을 보는 느낌이 둘다가 좀 더 하면 세꼬시의 고기 맛 같은 느낌이 우러나고 더욱 더 험담하면 마지막에는 뼈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우러나와 험담을 멈출 수가 없고, 남들을 험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 자신이 더 의롭게 보이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여지기도 하여 상대방 특히 교회 내에서 말쑥 많은 성도들에 대한 험담을 멈출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는 중 약 한 달쯤 전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저를 질책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니 남을 저주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온전치 못한 입을 가진다고 되어있어,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앞으로 저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태껏 제가 험담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분들을 축복해 주도록 기도하고 목상하려고 합니다.

한 마디 말을 잘못하여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교회를 옮기도록 만들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혹 이런 경우가 저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저희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목상 기도 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동참하여 아름다운 보스톤 한인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찬송 기도 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기도: 하나님, 이제부터 남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 28)

지난 일년을 어떻게 보냈나 살펴보려고 2017년 달력을 한달씩 넘겨 보았다. 주님과 새벽마다 만났던 사순절의 날들이 3월을 가득히 메우고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제였다.

유난히 밝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소박한 목자들이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달려가 경배 드리며 만났던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오랫동안 찾고 기다리던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 이분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 하시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세례요한, 제자들, 니고데모, 그리고 5천의, 4천의 군중으로도 만나시고, 수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만나시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크고 아픈 상처와 수치에 몸부림치는 수 많은 여인들을 만나시고, 낮은 어린아이들, 높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 주셨다.

길을 가시면서 만나 주시고, 회당에서 만나 주시고,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고, 식사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시고, 외치는 소리에 만나 주시고, 눈에 띄는 갈급한 자를 만나 주시고,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자를 만나 주시고, 산 위에서, 호수 가운데서, 못 가에서, 성전에서, 마침내 십자가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가운데서 강도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도,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땅 위에 수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계신다. 이런 만남을 위해 일 하시며, 참으시며, 오래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도 만나 주셨으니 새벽마다 그 감격이 새로웠다.

“주님 저는 당신이 너무나 너무 좋아요, 너무나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너무 멋지시고 너무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포근한 사랑에 쌓여서 행복한 최고의 시간들로 가득 찬 사순절을 보내곤 했다.

사순절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소원들을 주시곤 한다. 주님께 떼를 쓰듯이, 따지듯이, 약속하신대로 응답 주시라고 성경말씀을 끄집어 내어 간절히 기도한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몇몇 조카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하신다.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럼그럼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단다 라고 하신다.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내 것처럼 축축히 차 오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들을 많이 위로해 주어라 라고. 기도에 빚진 자가 되어 나라들을 위하여,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와 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마음이 초초해 지고 조바심까지 난다.

이번 사순절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보다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가.

기도: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다려주는 사랑

정유미 집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10)

사순절 새벽기도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왜 나만 기다리게 하시나요.
세번의 사순절이 지나고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 눈 속에서 유모차를 밀던 중에
낯선 사람이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저를 바라보며
몸짓으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까?’

못 알아듣던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서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모차의 앞바퀴를 말없이 들어서
눈 문턱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앞장 서서 걸어가면서 작은 눈 언덕이 나타나면
유모차가 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도 한동안 잔상이 남았습니다.

문득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사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
수없이 말을 거셨겠구나. 수많은 무응답을 참아 주셨겠구나.
폴랑 3년 기다리고 한 불평도 묵묵히 들어 주셨구나.

내 삶은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있는가.

타인의 친절에 감동하는 나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십자가를 눈물로 목상하고 있는가.

기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신..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고맙습니다. 아멘.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a hymn of praise to our God.
Many will see and fear the Lord and put their trust in him”
(시편 40:3)

As we are going into a season of Lent, I want to share one of my reflections. Since July of 2016, I have been worshipping with our youth group, and since October of last year, I have been a director of our youth group, and have enjoyed every minute of it. Of course, there are challenges, but working with dedicated teachers and enthusiastic youth has been encouraging and helped to rejuvenate my faith in God.

Before joining the youth group, I went through the very difficult time of dissolving Bethany Presbyterian Church, which I had been a large part of my life for 27 years. When you spent so much time and energy for the church and saw it dissolving, many things go through your mind. Disappointment, questioning your ability to lead and feeling of letting down others. As bad as I felt about the Bethany's closing, I also fel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of many years of ministry of Bethany. So many young people went through Bethany for many years and changed their lives for Christ. There are many stories to tell, many good and some bad.

Amazing part of this experience is that today I have sense of accomplishment more than disappointment, not the other way around. Although I have some regrets on my approaches to Bethany ministry in some areas, I feel so blessed by and grateful for many years of experiences in Bethany. These days I value more the process how things done than how great the results are. God's blessing doesn't just come through great outcome but through what you have learned from the journey you just finished and move on to next journey of life with an assurance that God will bless it.

Prayer: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blessed experiences and providing me new experiences with your blessings. Amen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8)

평온하게 잠이 드신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붙여드린 반창고가 둘째 손가락에 여전히 붙어져 있는 채로 할머니는 응급실 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시던 그 날,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반창고를 손에 움켜쥐고 무너져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계획했던 수많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던 그 날, 그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 품에 안기셨던 바로 그 날, 저는 저의 삶의 큰 기둥이었던 (그리고 제 유년시절의 전부였던) 할머니를 가슴 깊숙이 묻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갑자기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 드렸던 까닭인지 할머니를 떠올리면 이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르르 눈물부터 흐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의 빛을 처음 접한 그 순간부터 저는 쭉욱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습니다. 당당한 신여성이자 전직 호랑이 사감선생님이셨던 할머니는 맛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하여 손녀 육아를 용감하게 책임지셨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B사감 빨테 안경을 장착하면 알래스카 얼음여왕의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재연했던 패션니스타였고, 늘 열정적으로 찬송가 곡조를 입에 달고 사시는 가스펠 셀럽이셨으며, 특유의 유머와 해학을 곁들여 해석해내는 성경이야기의 달인이셨던 저의 할머니 ‘박찬순 권사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크게 어필되는 인기녀이셨습니다. 간혹 할머니의 차가운 첫인상을 보고 다가오기를 꺼려하시는 분을 보시면 “내 안경이 나를 또 모세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친구 한명을 더 추가하셨던 할머니. 요즘 세상에 사셨다면 아마도 유명 유튜브버나 폐북셀럽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보여지는 이미지 덕분에 당신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셨던 셀럽 할머니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바로 음정/박자 개의치 않으시고 시조 읊듯 모든 찬송을 읽어 내시는 탁월한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분명 포스는 오페라 프리마돈나인데 흘러나오는 반전 엄블 곡조는 주일예배 구역예배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 색다른 찬양의 세계를 선사하셨습니다. 당신 페이스에 맞춰 남들 3절 찬양하는데 4절까지 미리 끝내시고는 피아노가 느리게 따라온다면서 반주자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할머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조찬양을 읊어대시며 “혜승아, 이 찬송가가 몇 장이지?” 라고 물으실 때면 언제나 도전정신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찬송가 가사를 많이 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할머니식 조기교육은 자연스럽게 저를 찬찬양환경에서 자라게 하였고 셀프 업그레이드시키며 긴장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시조찬양과 함께 기억되는 또 하나의 추억은 새벽 4시에 시작하던 할머니와의 QT시간입니다. 글씨 하나가 간판글씨 같았던 antique 성경책.. 돋보기 없이도 읽으실 수 있었던 그 낡고 닳은 성경책을 굳~~~이 그 새벽에 눈도 안 떠지는 저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셨던 할머니.. 혹시라도 아는 성경구절이 나오면 눈감고 자면서 읽는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조한 성경읽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도

“박찬순 권사님”의 유쾌한 언변으로 재탄생한 성경 이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새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무척이나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으나(절 깨우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덕에 1년에 성경 66권을 2번씩 읽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가시던 그 날도 할머니는 커다란 antique 성경책용 목직한 핸드백을 손에 들고 수요 저녁예배를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외길을 걸으셨던 할머니. 마지막까지도 사순절의 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신앙의 지킴서 역할을 하셨던 ‘박찬순 권사님’이 더 자주 생각납니다. 아직 살아계셨다면 저의 이 헤이해진 신앙생활을 얼마나 불같이 혼내실까 하는 생각.. 기껏 공들여 조기교육을 시켜놨더니 교회 ‘댕기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방탕한 생활한다고 뿔뿔이 안경 너머로 노려 보시며 공포영화 한편 찍으셨을텐데 하는 생각.. 우리 아이들도 새벽 4시에 깨워 빠시게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하셨을텐데 하는 생각.. 정말 그러고도 남으셨을 거라는 100% 확고한 믿음.. 어린 제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스파르타식 신앙 일정이었지만, 위대한 조기교육의 귀한 선물을 심어 주셨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들어 신앙의 나침반을 잃은 저의 추한 민낯과 매일매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달리시던 할머니의 신앙 열정이 더 그리워지나봅니다. 머리 굴리며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탕자의 신앙생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널부러져 있다가 그분께 한 번 오지게 혼날 것 같은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에 오는 할머니의 기일마다 웬지 할머니께 혼나는 기분이 들곤 하는 것도 알면서 실천하지 않아 오는 죄책감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더 늦기 전에 저의 부끄러운 죄책감마저도 둔감하게 만드는 자기 합리화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합니다. 저의 무더진 신앙열정의 온도를 높히고 멀어져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건강한 신앙속에서 자라나게 살피주신 “박찬순 권사님” 식 조기교육의 귀한 역사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려 합니다. 새벽 4시에 아이들을 깨워 성경을 읽게 하진 못 하겠지만(제가 못 일어나서..), 자기 전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5분 늘리는 것과 등교 전과 자기전에 함께 드리는 기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실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웠듯이 소박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신앙 생활습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며 신앙의 긴장감도 다시 찾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바램대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을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박찬순 권사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이 소박한 습관들이 굳건한 신앙을 이루게 하는 반석이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해, 조금은 더 특별한 사순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 주여, 당신과 매일 대화하게 하소서. 당신을 가까이하고 당신의 비전을 읽게 하소서.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김학주 교수 (청년 2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39)

매년 그러하지만 2018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결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사순절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저의 여러가지 모습 중 가장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저의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가끔 고집보다는 소신에 아주 조금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항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욱신의 욱심을 따라 살던 전장의 용사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 성이그네이셔스의 이야기, C.S. 루이스의 회심 이야기, 사도바울의 변화된 이야기 등을 알아가며 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한번에 완전히 나의 고집을 꺾어줄 무언가를 몰래 은근슬쩍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숙명 앞에서 그렇게 하기 싫은 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이내 채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집을 꺾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조화롭게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비스무리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저는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내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보낼 날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모습이 어렵듯이 보일 수 있는, 서로 섬김으로 물든 가정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순종이 너무나 아름답다워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님의 모습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2)

렘브란트 그림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림이었습
니다. 그림을 찾아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
습니다. 십자가는 한창 세워지고 있는데, 화가 자신이 중간에 서서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옷 색깔은 밝은 하늘색이고, 빵떡모자입니다. 영락없는 화가의 모습이지
요. 화가 표정은 울 듯 말듯, 일그러져 있고요. 그가 왜 그림에 들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로 남고 싶었던 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렘브란트의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도 화가 자신이 들
어갔습니다. 이번엔 사다리에 올라가 등잔을 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긴 등 뿐이겠나
요.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손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체를 조심스레 내리
는 이도 있습니다. 슬프고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니고데
모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가가 노년에 그린 자화상도 있습니다. 온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피부색과 곁은 말
할 것도 없는 노인 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만큼은 밝고 평안했고, 천진해 보였고
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으며, 그림으로 그의 신앙과 믿음을 내보인 덕분일 꺼
라 믿습니다.

운동주 시입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왔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목아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 5.31, 십자가 중에서)



렘브란트는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등이나마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 운동주
도 간절히 기도했을 테지요. 제게 십자가를 허락하소서.

기도: 그림과 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읽
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무심히 스쳤던 그림이 눈에 들어오고 시가 읽힙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게도 십자가를 허락하소서. 아멘.



빛과 그림자

유보라 (청년 2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작년에 열렸던 하나 콘서트에서 저는 무대와 순서를 총괄하는 무대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늘 콘서트를 관객 입장에서만 봤지, 그 콘서트를 준비하는 팀원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지요. 긴장이 어찌나 되던지 순서지가 마르고 닳도록 쳐다보고 리허설 당일까지 혼자 머릿속으로 콘서트를 몇 번이나 시작하고 끝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들과 청년들의 귀한 섬김으로 무대 구석구석이 채워져 갔습니다.

무대를 담당하는 팀원들은 연주자 수에 따라 의자와 보면대 수를 조정하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닫고, 연주자들의 입장과 퇴장에 맞춰 조명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했습니다. 마이크의 볼륨도 조절하고, 다음 순서의 연주자들을 대기 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일들은 모두 다 달랐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팀원들의 까만 복장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 다음 연주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팀원들은 움직였습니다. 주로 조명이 꺼진 곳에서 움직여야만 했지요. 다음 연주를 위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와서 무대를 세팅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했습니다. 무대 팀원들은 눈에 띄면 안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까맣게 통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무대팀의 바람은 그랬습니다. “그림자처럼” 무대를 세팅했다가 다시 후다닥 퇴장하는 그런 바람. 하지만 콘서트가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저희의 바람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앞의 조명은 다 꺼졌지만, 뒤에서 무대를 비추는 강한 조명은 저희가 조절할 수 없었던 관계로 무대 팀원들이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까맣게 입고 왔던 팀원들이 그 조명에 때문에 오히려 아주 잘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잘했어-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좌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찬송 한 소절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비추어졌을 때, 잘 보였던 것은 검은색 옷을 입고 바지런히 움직였던 무대 팀원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비되어 잘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는 어두운 과거, 상처, 아픔,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름이 드러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빛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림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뉠냐는 나사렛이란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구유에 오셔서 아무도 손 내미려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먼저 손 내미신 예수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예수님을 찾았지만 혼자 조용히 산으로 떠나 가셨던 예수님. 그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 지려 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죄를 지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어둠과 슬픔을 홀로 감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화려한 조명 속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던 그 어둠 가운데 그림자처럼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정말 빛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예수님이 빛이시니, 너도 빛처럼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해석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그림자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그림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도래를 보며

전신애 권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7)

몇 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AlphaGo Lee 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이세돌 9단은 한판만 승리하고 패하였다. 중국의 키제 9단도 완패하면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한다. 최근 구글에서 새로AlphaGo Zero 가 개발되었다. 빅데이터 원리인 알파고 리에 비해 알파고 제로는 오직 기본 바둑 원리만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스스로 72시간 신경막 습득을 한 후, 알파고 리, 키제와 대결하여 완벽한 완승을 했다고 한다. 이것의 의미는 실로 놀랍게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어마어마 하게 빨랐기 때문에, 이 속도로 발전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간 로봇을 만드는 것이 빨리 실행 될 수 있다고 한다.

아날로그 세대인 나로써는 듣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가? 정말 종말로 가는 과정인가?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을 넘어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절제와 근면과 사랑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간 스스로 고통도 해결하며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여러가지로 시도들을 하고있는것 같다. 이런 모든 시도들이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듯 세상은 스스로 강하여 지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들의 2세, 3세 들에게 지금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세대 차이가 날것 같다. 성경 말씀이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4차혁명 시대 아이들로서 기계가 기계에게 명령하여 실행하고, 모든 지식의 빅데이터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활용에 능한 우리들의 2세, 3세에게 교회는 발 맞추어 가기가 너무 느리다. 교육전달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중과 중간의 이식, 유전자 우성 조작,복제, 성전환 등등..) 에 대해 이전의 가르침으로는 이런 문제의 답을 할 수가 없다.

과연 신에 대한 도전이나? 아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산물이나를 떠나서 점점 죄에 대한 절대 정의가 너무나 상대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기존의 묵회 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기도: 오늘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의 성도가 넘쳐나길 기도하며, 소멸되어 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 24-29)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께서 보내신 40일 광야 시간 내지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편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간다고 할까요?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가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흉내낸다고 할까요? 그러면 절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까요?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 하여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바울은 기가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끝없이 토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게 때로는 더 유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고난을 아니 우리들의 절제를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절제의 삶을 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왜 끝없이 절제해야 하나?” 주님께 질문도 종종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받은 답변이 있다면, 주님은 사도바울의 고난을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가 고난 받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절제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광을 체험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순절 기간 믿음의 선조들이 절제를 하였던 이유가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 가기 위함이었었습니다.

<2017. 3. 19. 주일 설교문 중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박미숙 집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얼마 전 책 정리를 하다가 큰 아이가 청년부 때 쓰던 낡은 성경책 갈피에서, 뭔가를 적어놓은 조그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버리려고 했는데, 쪽지에 또박또박 적어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게는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디……”

‘부디’ 라는 말에 그만 땀!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느덧 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을 바라보는 큰 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그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애쓰던 시절에 적어놓은 짝막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어 가족 카톡방에 올렸지요. 그러자 바로,

“ㅎㅎ, 그거 아빠 말씀 듣고 적었던 기도예요.”

항상 들었던 말인데 그날따라 마음에 와 닿았다 하면서 어느 날부터 기도를 글로 적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니 몇 번의 도전 후, 낙담해 있던 아들에게 남편이 “끈기 있게 기도해라, 아빠는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무조건 기도한단다,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이지요. 마음 속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으며, 여름 한낮의 수고도 마지않는 농부의 심정과 같겠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해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매일 떠오르는 수많은 간구.

나는 그 분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지만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간절히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기도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난처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할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가장 안전한 기도는, 먼저 그 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드리고, 내 안의 그 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와 교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났습니다. 아들들에게 저도 한가지 말해줘야겠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먼저 여쭙고, 그 응답에 따라 간구하면 기도 성공률은 100%란다.. ”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와 동행하면, 우리의 필요와 구함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2017년을 돌아보며 한해 동안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들 중에 가장 마음속 깊이 남아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주일 아침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직접적인 의미, 혹은 1차적인 의미는 이미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요지는 부부란 돕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남편은 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부인은 남편을 도와주는 존재란 것이다. 매우 좁은 의미의 돕는 배필이라 생각 되었다.

의미를 좀더 확장하여 간접적인 의미, 혹은 2차적인 의미로 보스톤 한인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분들 간에 있어서의 돕는 배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돕는 존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돕는 존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간에도 서로를 돕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우리 교회 내에서 2차적 의미의 돕는 배필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집사회는 청년부들과 서로 돕고 마음과 힘을 합하여 “Hana Concert”를 성공적으로 꾸밀 수 있었다. 물론 보이지 않았지만 여선교회 회원들의 도움의 손길이 그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 중고등부와 청년부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 헌화와 다과로 봉사하는 손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고하는 노력, 구역을 섬기는 손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부하는 것 등등 이루 다 나열 할 수 없이 많은 돕는 배필들을 통해 은혜로운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보스톤 한인교회의 남선교회, 에스더/마리아 여선교회, 청년부, 각 위원회, 집사회, 권사회, 상록회 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었던 것이다.

매년 사순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등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한다.

기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로 진정한 돕는 배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장 큰 선물

권복태 장로
(BNI Russia 선교 보고서 중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14)

나의 생애에서 맨 처음 선교라는 여정에 몸을 실은 것은 10월 4일, 그것도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러시아 였다. 8박 9일의 그야말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여행은 나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도 같다.

맨 처음 선교여행 팀이 구성될 때 만 해도 나는 선교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유럽의 변두리, 아시아에서 보면 Far West 그래서 유라시아라 불리고 오랫동안의 공산주의로 인해 닫혀 있다가 개방된지 채 30년이 안된 그 땅을, 거의 모두가 70세가 넘는 단원들로 이뤄진 그야말로 잔잔한 황혼기의 호기심 가득 찬 한 여행팀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에 구성된 팀원들의 준비를 위한 잦은 모임이 출발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여행에 대한 나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달에 두번씩 만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인솔하는 목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 마음이 열림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명확한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만날 때 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합창하며 불렀던 찬양들은 그 짧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을 흠뻑 적셔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출발 전 나의 의문은,

왜 선교사들은 자기의 집과 일가친척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이국 땅에서 무모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가? 그들이 드리는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신가? 그들이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며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이며 하늘 나라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이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 단원들이 함께 드린 기도들 중 가장 많이 와 닿은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기쁨, 위로, 격려) 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과 “현지인 (러시아인, 고려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은혜 나누게 하소서” 라는 것 이었다.

현지에서 세번에 걸쳐 그들과 가진 예배와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간증 등을 통하여 나의 의문은 말끔히 씻겨 나갔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퍼져 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뚝 선 것처럼 보이던 그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나처럼 회의하고 있었고,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죄스러움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고 눈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자신들이 버림받고 내팽개쳐 졌다는 두려움이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어우러져서 아리랑과 도라지를 부르며 함께 눈물 흘린 것 밖에---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 힘찬 땀을 뿜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빛이었다. 우린 정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쳐 쓰러져 호렙산 로렘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확신이었다.

지금도 내 기억에 강력히 못 박혀 있는 것은 그것들과는 동떨어진 고려인들의 어눌한 한국말과 그들의 얼굴에 박혀있는 영혼 같은 주름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잔잔한 미소들이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 여정도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가고 싶다. 진정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면 나는 앞에 말한 여러가지 의문에서 풀려나게 되고 더욱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 한다.



기도: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온통 금박으로 덧 입혀진 화려함의 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화내고 즐거워 하셨던 그 길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

신미송 권사

3/8(목)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 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21:1,3)

작년 한 해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나 혼자서 마음 속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육십도 넘은,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이니 까 조금 더 여유있게 인자해지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통 크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며 보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소소한 즐거움이 모여 작은 행복을 느껴보도록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친구는 내가 늘 닳고 싶은 사람입니다. 많은 일과 봉사를 하면서도 절대 힘들어 하지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 “ 니는 어찌 그리 힘든 내색을 안하는 거야? 언니 같잖아” 그 친구 왈 “나는 이미 이십대에 한번 심하게 앓고 난 후 모든걸 주님께 맡겼 노라고,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고 불평이 되지 않아” 라고 말이죠

만나면 늘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교우님, 마음으로 기도로 용기를 주는 친구, 10여년을 한결같이 같은 구역을 하면서 만나면 따뜻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내 옆에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때로는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달과 같은 존재라서 상대방의 어두운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어둠을 아는 것은 나(?) 뿐이기 때문에, 힘들 때면 남들은 저렇게 잘나가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볼 수 없고, 그도 나를 온전히 볼 수 없는 데, 나는 왜?

얼른 정신차려 나의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행복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감사(Thank)하지 않는 이유는 깊이 생각(Think)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에 기꺼이 감사로 되돌릴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올 한해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복에 감사 하렵니다

기도: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위의 성경말씀은 단지 사도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섭리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에,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이자 영생으로 이끄는 결론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한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에 일어나도록 계획해 놓으셨으니! 그러나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겪은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에 내 마음은 아프고 그 Agape 의 사랑에 무릎을 꿇는다.

나의 아파트 문간에는 금빛 나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서 있다. 나는 그 금빛 나는 십자가를 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노래하면서 독백의 울동을 가꿈 하곤 한다. 몇 달 전에 Northern Virginia 에 사는 딸한테 갔다가 딸네 집 근처에 거주하는 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좋은 크리스찬인 그 친구한테서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노래와 울동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노래와 울동의 심취하여 만나는 친척들에게 가르쳐주며 같이 춤을 추었다.

그 보다도 더 몇 년 전에 뉴저지에 살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하고 표면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이 plunge into 되는 깊은 자유를 맛보고 싶어졌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시므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었나 보다.

한 때, 나에게 닥쳐진 쓰라린 인생의 전환기를 통해 나는 주님께 발버둥쳤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졌으리라. “Why me, why me, Lord?” 하던 때를 기억한다.

훌륭한 크리스찬 닥터라고 사람들이 존경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허탈한 상태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나에게 체험적으로 적용되어 일어 났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 좋아하던 스키도 버리고, 골프채도 남에게 주었다. 거기에 대한 Value나 흥미가 사라진 것이다. 나에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변화시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제 자신을 re-dedicate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딸로 붙들여 주옵소서. 아멘.



Lent devotional

무명인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Isaiah 1:18)

This is my wasteland, bleak and withered,
Marred by countless blackened scars.
Filled with sorrow, I consider
What this place has faced thus far.

Countless storms and sad disasters
Scarred this place, yet even so
Tis shunned by most, abhorred by others;
Those who neither care nor know.

A gentle sparkle glimmers slightly
As a snowflake touches ground.
It melts and fades; I deem it lightly
Till countless others flutter down.

Endless crystals, each one crafted
Pure and spotless, clean and bright,
Form a grand, ethereal blanket,
Filling end to end in white.

For a moment, past forgotten,
Dazed before the sights unfurled,
I gaze around, fulfilled and heartened
At the beauty of my world.

And yet this snow lasts not forever;
Sunlight's blazing warmth is felt.
First a dazzle, then a river
And the snow begins to melt.

I strive to block the sunlight seeping
Though I know 'tis useless toil
For I fear the warmth revealing
All the dried, disfigured soil.

Towards the sky in anguish staring;
Won't you cover up once more?
The unrelenting sun shines, glaring,
And I stand in fear, unsure.

Yet as the blanket's softly lifted,
Ground emerging into view,
I stand amazed, my focus shifted
Towards the land that feels so new.

All the scars and stains so hardened,
Washed clean by God's cleansing snow;
The barren waste is now my garden
Where green grass has begun to grow.



*Prayer: Lord, I thank you, and pray for faith and trust through all you
bring to make my heart as white as snow. Amen*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4)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한 마디로 광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드는 절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1년에 40일은 생활속에 광야를 만들기로 하여서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참회의 기도, 절제 그리고 구제입니다.

사순절이 절반 이상 지난 오늘 이런 설교를 드려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되지만 앞으로 남은 3주간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제를 통한 광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는 구제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더 실감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자신들의 구제의 삶을 자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가 자랑거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의 의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보이려고….

이로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한 마디로 주머니가 얇아지는 것보다 명예를 더 좋아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는 얇아지더라도 이웃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경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곧 돈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산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존귀함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 부터 오는 칭찬과 상 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존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처럼 돈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으로 맞바꾸는 시대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에게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주머니가 얇아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존경 보다는 주머니가 두툼해 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예수님께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2017, 3, 26, 주일 설교문 중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몇 해 전 새로 들어간 성경 공부반에서 받은 첫 질문입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을 보니 권위적인 반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반은 20대부터 60 대에 이르는 연령층에, 5:5 남녀 비율,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다양한”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걸모습 뒤엔 동일한 소망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모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 자신의 사회적 배경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기준 (나이, 성별, 돈, 학력 등)으로 보다 보면, 성도 간에 서로 벽을 쌓게 되어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어려워 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낮아져서 서로 내세울게 없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위로할 수 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각기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
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
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요한복음 6:9-12)

책장 정리가 목적이었다가 좋은 책만 발견하게 된 저는 결국 책장 정리는 포기하고...
목상집을 위해 감동적인 부분을 정리해보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피릿 베어 (TOUCHING Spirit Bear)’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를 방관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똑같은 방식으로 밖에 표출할 줄 모르는 콜은 주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아이다.

어느 날 콜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밀고한 피터라는 아이를 죽을 만큼 때려
주고 교도소에 가지만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없다. 보호경찰관 가비라는 사람의 도움
으로 감옥 대신 원형평결심사 (그 지역 원주민들의 재판방식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
라 치유가 목적이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1년을 철저히 고립상태로 지내며 자신의 삶
의 방식을 반성하고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며 자신을 용서해 가는 법을 배우가는 것이
다.) 라는 것을 받게 된다.

섬에 갇힌 순간부터 이 지경에 자신을 내몰은 세상의 모든 존재(부모, 피터, 자신을 판
단하려는 모든 것) 에 분노를 느끼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스피릿 베어(하얀 털
을 가진 곰, 원주민들에게 힘, 용기, 사랑, 조화를 상징함)와 마주치고 죽기살기로 덤
비지만 처절하게 당하고 만다. 가까스로 구조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섬으로 돌
아가게 될 때에는 콜 자신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려던 그 순간을 통해 여러가지 깨
달은 바가 생기게 되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보호경찰관 가비와 그 지역의 원주민 에드
윈의 도움에 순응하며 섬에서의 1년을 새로운 맘으로 맞아들인다.

원주민들이 자기 수행을 통한 치료법 1. 새벽에 눈에 가서 찬 물속 몸 담그기. 2. 조
상의 돌이라고 일컫는 큰 돌덩이를 높은 언덕까지 들고 가서 자신의 분노라고 생각하
고 굴러 버리기. 3.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상의 삶을 춤으로 표현하기 .. 하루하루 이
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스피릿 베어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가짐일 때 보여
지는 존재라는 사실과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지닌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용서를 하고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 잘못을 행했
던 친구 피터에게 용서를 구하기까지에 이르게 된다.

콜이 다시 섬으로 돌아가던 때 보호경찰관 가비와 원주민 에드윈 그리고 콜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소시지 요리를 요구하는 가비에게 콜은 “이깃 소시지 요리, 하고 안 하고가 뭐 그
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다고 당장 세상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
가비가 말했다. “ 세상이 소시지란다.”
소시지 요리를 엄숙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부리나케 만든 콜에게 가비는 먹기를 권하
고 게걸스럽게 먹고 난 콜이 이젠 뭘 하냐고 물을 때 가비가 말했다.
“ 그 소시지는 정확히 네가 원하는 만큼만 값을 한단다. 네가 빈속이나 채울 요량
으로 소시지를 먹었고, 그 바람대로 소시지는 허기만 달래준 거지.. 더도 덜도 아니
고 딱 그만큼만.”

콜에게 새로운 소시지 하나를 건내 받은 가비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소시지라며 조심스레 쥐고 꼬챙이에 살살 꿰어 타지 않는지 유심히 살피며 아주 정성스럽게 소시지를 굽는다. 그리고 요리를 마친 후 식탁을 정성껏 차리고 건배할 물도 준비하고 소시지를 한 조각씩 떼어서 함께 있는 두 사람에게도 나누어준다.

“그건 아저씨 몫이잖아요.” 콜의 물음에
“그렇지, 그런데 나는 나눠 먹기로 했단다.” 라고 대답한 가비는 한입 한입 맛을 음미하며 먹었다.

다들 먹고 나자 가비가 콜에게 돌아서 물었다.
“ 내가 준 소시지와 아까 먹은 소시지가 어떻게 다르던?”

콜은 어깨를 으쓱하며
“ 아저씨는 소시지를 나눠주셨고, 그 소시지가 무슨 대단한 거라도 되는 양 행동하셨어요..”

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 그래, 대단한 거지. 파티를 열었잖니. 소시지로 나눔을 실천하고 축배를 든 거란다. 내가 애초에 그런 맘을 먹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지. 네 소시지는 그냥 빈속을 채우기 위한 음식에 불과했어.

네가 오로지 그것만 바랐기 때문이란다. 인생도 마찬가지로야. 딱 바라는 만큼만 되는 거란다. 어디 이 섬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해 보렴. “

콜은 신발로 바닥을 쓱쓱 문질렀다. “ 축복할 게 뭐 있는데요?”
에드윈이 말했다. “ 너 자신을 발견하라. 살아있음을 축복할지여다!”

세상이라는 소시지를 받아든 콜이나 가비나 에드윈. 소설의 인물 뿐 아니라 나란 존재도 어떻게 소시지를 요리할 것이냐는 제 몫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 소시지를 요리하는 법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나의 허기만 채울 요량으로 살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딱 바라는 만큼만 되는 거란다” 라는 가비의 조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바라는 만큼을 정해 보기로 하였습니다.(저희 부부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도 그 분의 영향을 받아 좀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나의 몫을 나누어 파티를 열고 축배를 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십일조와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몫을 배웠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시지 요리법 (이웃을 위한 몫)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일부를 말로만이 아닌 물질의 일부, 시간, 주신 달란트 개발 등으로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한 몫으로 나눠 놓고 나면 이것이 파티이고 축배가 되어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보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마음도 불러있지 않을까요... 이 느낌이 바로 “살아있음을 축복할지여다” 라고 콜에게 힌트를 준 에드윈이 느끼고 있었던 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딱 바라는 만큼의 세상을 성경에서 배우고 자신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시선을 거둬서 주변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

오영석 교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2018년 초 였습니다. 날씨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섭씨로 -20도에 칼바람도 불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을 하러 나왔는데 시동 걸기가 어려운 걸 느끼며 무척이나 추운 날씨를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시동 걸기 조금 힘들었지만 아무 탈없는 자동차와 할 일이 있고 혼자 음식 해먹기 귀찮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또한 호화로운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것이 새삼 뇌리를 스쳤습니다.

TV에서는 추위에 pallet stove를 피우다 불에 타는 집의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 혹한기 속에 노숙자들은 결코 그리 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닐진데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벽이 없어서, 너무 건조해서 튼 살이 칼 바람에 찢기우며 살아야 하는, 주린 배를 붙들고 추위를 피하려는 아픔을 나눌 수는 없지만, 무엇이든 도울 것이 없을까 하던 중 언제인가 방문해 보았던 Pine Street Inn shelter가 생각났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 한잔이라도 나눌 수 있었겠지요……

감사할 조건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기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영원히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복음 2:16-17)

누가복음 2:8-20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6-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라는 구절에 눈이 고정되었다. 갑자기 ‘만일 목자들이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첫 아이 ‘의진’ 이가 태어날 때 군복무를 하느라 출산하는 아내의 곁에 없었다. 그래서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느껴졌다.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진통을 하는 아내 마리아를 위해 방을 구하지 못했다. 아내는 마굿간에서 출산을 했고, 아기는 말구유에 누였다. 예나 지금이나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웠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 가 표적이라고 이야기 했을까. 성령의 특별한 계시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특별한 아기를 마굿간에 출산하고, 아기를 말구유에 누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미안했을까. 만일 목자들이 이 소식을 이 부부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기를 출산하면서 겪은 초라함을 평생 마음의 깊은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자들이 전한 메시야의 탄생의 소식과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서 누운 아기’ 는 표적이라는 말씀은 초라함이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했을 것이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누가는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나라’ 라고 기록했다. 그래,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

나도 주님이 내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전설같은 놀라운 소식. 오늘도 내 주위에 마굿간과 말구유의 초라함에서 인생을 좌절하며 쓸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도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받으며, 성탄의 기쁜 소식에 잠긴다.

기도: 내 주위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즐겁게 살지어다!

지훈 집사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도서 9:9)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전도서 3:12-13)

제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 평안도에서 태어나시고, 6.25 전쟁 후엔 실향민으로, 그 시절의 많은 부모님들처럼 밀바닥에서부터 사업을 일궈내고 다섯 형제를 길러 내신, 강한 생활력의 평안도 ‘아주마이’ 셧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신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 내시곤 하셨는데, 어머니 스스로 장편소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저 듣고만 있어도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였습니다. 또 나름대로 깨달으신 성경말씀에 곁들여 들려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꿈 많은 청소년기엔 누구나 크고 작은, 때로는 허황한 장래 소망을 갖게 되지요, 비록 실현 되지못하더라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 제 관심은 “영원한 것” 이었습니다. 막내였던 저는 제일 어리니만큼 어머니께 이래저래 마지막까지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었던가 봅니다. 곧 잘 외골수로 빠져들곤 하던 제 성격을 잘 아시는 어머니는 어느 날 예의 그 강한 평안도 억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야야, 내는 평생 못 그랬지만, 너는 고저 뭔가 될라고, 이루려고 애쓰디 말고 살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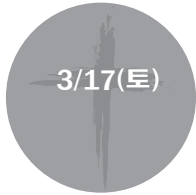
“??... 아무것도...말라고요?”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하셨지만, 그 후 오랫동안 제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온 그 말씀을 되뇌이며 나름 대로의 해석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 나이에 다달아 깨닫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말씀이었으리라는 것을...

“아들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것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기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21)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간을 들여 읽고 써서 보람을 얻는 것이 또 있을까? 지난 2017년 1월 2일 예년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통독을 해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는 안타까움에 금년에는 한번 쓰면서 읽으면 어떨까? 하고 시편만 한번 시험적으로 읽으면서 써 보자고 생각했다. 책상에 있는 서예 화선지에 일편부터 썼는데 읽고 쓰는 중에 기도하게 되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속 쓰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지 “여호와와는 나의 구주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힘이요” 라고 일생 87년간 기도에서 처음으로 눈물과 찬송과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아들과 들의 살림이지만 할 일은 끝이 없다. 하루가 빠르기도 하고 편안하게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틈틈이 애꾸 눈을 비벼가면서 몇 줄씩이라도 쓰는 생활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구절마다 믿어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득한 걸음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다. 부지런히 읽기만 해도 1년 걸렸는데, 시편만 쓰는데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니 3년은 착실하게 걸리겠구나. 3년 후면 내 나이 90이 된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찌지...시작할까? 그만둘까? 시편을 끝내고는 아득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하나님께 여쭙보자. 기도 하는 중에 “다 못쓰면 못 쓴 대로 꼭 다 써야 할 큰 일이 아니니” 그나저나 이리 힘든 일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

자문자답을 하는 중에 기도에 변화가 왔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고는 다시 이 바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3년이나...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나이에... 비 생산적인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작이 반인데 창세기 창자부터 우선 시작하자’ 생각하며 아찔한 여행길에 나섰다. 이 어려운 여행을 이 늙은 게으름뱅이 애꾸눈 병신이 펜을 주문하고 주먹을 꼭 쥐고 시작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0.3mm펜을 150자루 주문했다. 할까? 말까? 이런 저런 이유를 만드는 생각에서 벗어나 눈을 비비고 밤을 세워 다음날 교회에 못 나가는 실수도 몇 번 있었다. 물론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의 아들, 손자, 증손까지 기록된 족보가 끝없이 계속될 때 지루하고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읽기만 할 때와 달리 아멘이 즐겁게 절로 나왔다. 감사한 일이었다.

생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추스리는 이상한 힘이 생긴다. 자족하는 감사가 매사에 충만하여 성경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느끼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부활절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쓸 수 있을까? 3년을 계획했던 일이다. 애꾸눈이 많이 따갑고 쓰라리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 2017년 11월 말에 완주했다. 놀라움에 참을 수 없어서 쓴 것을 꾸러 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자랑했다.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나도 해 보고싶다’ 는 마음이 단 몇 분에 게라도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나눈다.

기도: 나의 게으름을 이기게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낼 가슴을 주옵소서

정무일 선교사

“고난을 이겨낼 가슴을 주옵소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 4: 32~33)

제가 고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할 수 없는 고난은 잘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받아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르(Tagore)의 기도문 가운데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말고 고난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들은 고난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는 고난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타고르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맛보며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Helen Keller)는 삼중고의 고난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고 말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결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 보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이란 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삼 일을 넘지 않았습다. 고난은 손뼉같이 찾아왔다가 어느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스승같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다음에는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잘만 선용하면 우리를 축복 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강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욱 지혜로워 질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 원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아나이스 닌(Anais Nin)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은 움츠러 들기도 하고 활짝 피기도 한다” 고 말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더불어 성장하게 됩니다.

버나드 바루크(Bernard Baroque)는 “삶의 기술은 문제를 없애는 것 보다는 문제와 함께 성장하는데 있다” 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격려해주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 (David Griffith)는 “홀로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가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서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고난 중 꿈을 꾸십시오. 머지않아 미소 짓는 날이 찾아 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어린양이 잠시 주를 떠나 광야에서 길을 잃었나이다.
그리고 교만하여 주를 잊었나이다.
주를 떠나보니 고난이 찾아왔고 주를 잊으니 평강이 물러갔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God's Love

안성민 교우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1 John 4:7 ESV)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defines “love” as a “strong affection for another arising out of kinship or personal ties”. There are other definitions, such as a “warm attachment, enthusiasm, or devotion.” But the underlying theme in all of this is the equally perplexing concept of “affection”, or “attachment”. It almost feels like the semantics behind the word “love” should be so obvious that the definition is just the word itself – but to say this is to mean that the idea of love exists as a hard-coded quality of being human. In other words, “love” is natural.

Natural. Which means, as God created human beings, God created in us the ability to love. I like to believe that this is what is meant when John said in 1 John 4:19 that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ESV). By granting us the ability to love, God poured out His love unto us. For, if God created us as loveless beings, then that would make him cruel and unloving. But the very fact that we can love, and love is a natural phenomenon in our psyche, should prove to you that God loved, and continues to love, us.

And when we talk about God’s love, how can we forget about Jesus? His only son, nailed to the cross, dying for our sin as the sun strikes him down with no hint of clemency and gravity pulling him down to suffocate? If Jesus did not love humans, surely he wouldn’t have died that painful, terrible death as a sacrifice for us? But this is not what boggles my mind.

What really amazes me is that when we talk about God’s love we don’t just talk about God’s love for us, but who God’s love was. Another definition of “love” is “the object of attachment, devotion, or admiration”. Or to specify, “a beloved person”. And since we are talking a singular “love”, not “loves”, we mean a very specific person in history, that was the embodiment of God’s love – Jesus. So by God turning His back on His son, His love, He literally and figuratively gave His love to us in the most spectacular way. To me, that’s what’s so beautiful about God’s love, that it’s not just a concept, not just an abstract idea, but it’s a him – Jesus.

So, when we have Jesus in our hearts, we have love in our hearts. When we have Jesus in our lives, we have love in our lives. And if we don’t have love, the very thing that makes us human, then we don’t have Jesus.

Prayer: “Heavenly God, grant us the ability to not only love you, but to love others, and heal this world.” Amen.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9)

의심 많은 도마처럼
못 자국 난 손과 발, 옆구리를 보지않으면 믿지 못하는 나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고집 피우는 나.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우연일 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어리석은 나...

내면 깊은 곳에 바벨탑처럼 견고하게 우뚝 솟은 의심...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떠오르는 단어는 “정말”, “나에게”

이런 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결국은 나를 뒤집어 놓으신다.

2018년 1월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셨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의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피로
의심을 말끔히 치우시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완고한 내 마음에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기도: 매일 매일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내 중심에 세워주신 십자가를 보면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일흔 이레

윤원길 장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24)

몇 년 전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때를 예언한곳을 읽으며 많이 놀라웠다. 다시 9장을 읽으며 새로 은혜를 얻고 싶었다. 9장 1-17절은 유대인의 포로생활에서 귀환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9:20-29). 이것은 구약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였다. 누가복음에서 스가랴 대제사장에게 나타났던 같은 천사였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말씀이 내려졌다. 고레스의 조서 내용은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것이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다. 멧세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나 그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또한 70이레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스런 때를 맞게 된다는 것을 들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70 이레는, 70 곱하기 7(한 이레는 7일이기 때문에), 곧 490년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자주 1일을 1년으로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간 안식일을 쓸쓸하게 보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때부터 70 곱하기 7 을 계산하면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과 10번의 회년을 지켰어야 한다(예수님 오시기까지). 70 이레가 언제 시작 하는가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어렵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첫째 왕인 고레스왕 (538 BC) 조서로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이는 느헤미아 2:1에서 아닥다스왕 때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 (BC444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들 기간의 정확성을 알기는 어려우나 목적은 확실하다. 예언하신대로 오셨다. 유대인들만이 보는 유대인 성경 주석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Onias 삼세 (171 BC에 사망)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얼마나 다니엘의 예언과 다른가?

세속적인 유대인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시키고 현실적인 힘과 부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전혀 영적인 일로 오셨다. 그는 죄를 우리 대신 지시려고 오셨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 놓았다. 그는 희생제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오셨다. 그는 단번에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레위 전통의 제사를 끝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이다.(요1:41) 예루살렘과 성전이 끝내 멸망할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였다. 이 일들은 메시아가 죽은 후에 곧 잇따라 일어났다. 로마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언하신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

기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14:8)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생활 속의 지친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어 행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겪는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불드시는 손길을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겪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려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 때는 잠시 왜 그때 나를 데려가지지 않으셨나 하고, 근심 없고 고통 없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한없이 울었던 그 시간. 그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체험하고 느끼며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참 안식을 깊이 누리며 참 감사하는 아름다운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불드셨던 강한 손길, 정말 대형 또다른 사고 속에서도 나를 맑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이 어려운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라면 나로 인하여 받을 상대방의 고통을,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던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 안에서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생각하니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강물같은 평화가 밀려오는 벅차오름을 한없이 느낍니다.

한 알의 작은 겨자씨 그대로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면 나는 한시도 살수없음을 생각하니 오늘도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땅에 묻혀 죽을 수 있도록 나를 거친 삶 속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무한 감사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위로를 해주셨던 모든 사랑하는 한 알의 겨자씨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겨자씨의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 그늘 아래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 죽음과 고통의 늪에서 신음하며 애타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남은 삶 속에서 겨자씨의 삶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이 먹으면서

홍성웅 교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11:28)

나이 먹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주변에 감사할 사람과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있던 자리에 커다란 변화도 없이 줄 곳 함께 있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사는 주변의 자연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신기한 일이다.

서울 지하철 벽에 쓰여진 운동주의 서시(序詩)인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요절한 시인의 언어가 산수(傘壽)의 나이, 욕심이 부려서 망구(望九)라는 나이에 와서야 의미있게 전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기는 책 읽을 때 외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그럭 저럭 지내지만 그렇다고 눈이 밝아졌을리는 만무하다.

늙은이들 말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살아가는데만 골몰하였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사회와 달리 학교나 전공분야의 선택은 물론, 나머지 인생의 행로가 운택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었다. 내 주변에는 해외 출장과 야근 때문에 깨어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국경제의 기적에 기여한 기업인과 관료들이 많다. 그 시대의 학자들도 전공 분야 외에 교양이나 인문 서적을 읽는 것은 사치로 치부 했으니... 이렇게 살다 보면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 먹으면서 보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젊은 눈에는 띄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며,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나이 들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단위시간 당 새로운 경험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단위시간당 수확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의 밀도는 더욱 높아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노인이여, 혼음을 아껴쓰라” 는 새로운 경구(警句)가 나올 법도 하다.


그리고 나이 먹을 수록 가장 수확이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는 눈은 밝아 질 것이고.

내가 몇 년간 브루클라인(Brookline)에 체류하는 동안 보스톤 한인교회의 성경공부반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구를 스스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 우리는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가지면류관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 그 면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Crucified with Christ,
Living by faith in Christ”

Christopher Yunchan Rhee
(Youth Group)



3/24(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Dear God,

Something that I am grateful eternally is that no matter what we have done wrong, you always forgave us and still loved us.

Because you could of like, blast us with magic if we did something wrong, but you went to our side a became our mentor so we won't do again... soon.

I am also grateful for that you sent your only son to, see what it felt like to be us, you came down to our level.

You also led us our descendant (well, i think our descendants) through the wilderness with pillars of fire and clouds.

So I am very thankful of your Presence and may you live forever.

I think I am going to give up CANDY but not chocolate so I can focus more on you.

Thank you again, for everything.

*Prayer: Lord, in Christ we are made new. Thank You that we can look beyond our past straight into the eyes of our loving Savior.
Grow our faith and grow our trust in You and remind us that You truly do work all things for Your good.
Thank You for loving me and giving Yourself for me.
In Jesus's name, Amen.*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라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고독한 가운데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간단한 몇 마디 안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게 됩니다. 네 어머니라고 하시니 모셔야 겠죠. 당신은 고독하게 죽어가지만 당신의 어머니를 고독하게 살게 놔두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 후 고독한 주님께서는 또 입을 여셨습니다. 이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목마라.”

이 말씀 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로 목말라 이 고백을 하신줄 알았지만 실은 주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후에 깨달은 것을 28절 말씀을 통해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라’ 하시니.”

주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9: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는 신포도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해야 하심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한 마디를 해도 이는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독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라.”

그런데 주님의 이 고백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몸에 물이 빠져서 당연히 목이 마르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더 큰 목마름이 있으셨을줄 압니다.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있는 고독 가운데 주님은 깊은 영혼의 목마름의 시간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독한 자들의 목마름까지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온 인류의 목마름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너무도 힘드시지만 외치셔야 했습니다.

“내가 목마라.” 이 고백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의 감옥에서 목말라 하는 모든 인류의 고백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이루신 주님은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결국 주님은 감옥수로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모든 일을 외로움 가운데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서, 각자의 삶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한편 성경 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누고 있는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머지 두 번은…?

먼저 창세기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Thus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그러면 마지막 세번째는 언제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 계시록 2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영어 성경으로는 “It is done.” 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곧 창조와 완성의 “다 이루었다” 사이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창세기의 말씀과 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창조 역사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세상의 위대한 완성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의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상의 주님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우르는 역사적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17. 4. 9. 주일 설교 중에서>





시간의 십일조

진정원 집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밋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누구나 십일조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꼭 그리 안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듯 하다고 안위하는 마음에….

오래 전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 시간의 십일조라는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십일조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참 크리스찬 으로서 시간의 십일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 1440분 중에서 10% 라면 144분. 아무래도 144분은 좀 무리일 것 같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먹는 시간도 빼고 이래저래 억지로 줄여서 144분을 반으로 딱 잘라서 72분, 아니 기억하기 쉽게 하루에 한시간. 그래 하루에 한시간!!!

올해의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께 적어도 하루의 24시간중 한시간이라도 정성껏 드러 보고 싶습니다.

덜 자랑하고, 덜 시기하고, 덜 교만하고, 덜 무례하고, 덜 성내면서…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며, 더 덮어주고, 더 믿어주고, 더 잘 견디면서, 더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물론 하루의 한시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쉽게 똑딱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나는 과정을 중요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려 힘껏 노력하는 과정을 소중히 받아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이 기다려집니다. 이 과정을 맘껏 힘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기도: 다시 한번 힘차게 최선을 다해 적어도 하루의 한시간을 주님께 밀착 동행하도록 노력 하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와 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22-23)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은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을 줄인 말이다. 뜻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늘 새롭게 하라’ 인데, 은나라의 탕왕이 옥조에 새겨 놓고 이를 보며 스스로를 살펴서 정사를 잘 보았다고 알려져 있다. 일을 하다가 (또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나 잘못을 하기 마련인데 미루지 말고 곧바로 고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은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맑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내 영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맑게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졌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은 뒤에는 죄를 짓지 않는가? 아주 어려운 논제인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것 같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는 현재형이다.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도,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실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는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의 찬양 작곡가 이디스 맥닐 (Edith McNeill)의 곡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From Lamentations 3:22-23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기도: 거절할 수 없는 구속(救贖)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를 끈고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성생활은...

김문소 장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

저는 2017년 BNI 가을 학기 북쪽 Class 에서 5주간 윤경문 목사의 강의 ‘영성으로 살기’ 라는 과목을 공부했는데 마지막 시간 숙제 “나에게 영성생활이란?” 을 다 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저에게 영성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라 생각한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가는 삶’ 이라고 할까. 또 우리의 말씨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늘 긍정적인 반응들만이 드러나는 삶이라 본다.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은 늘 긍정과 부정의 교차로 선상에 서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다. 긍정적 반응으로 남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가하면, 부정적 반응으로 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하여 시험에 들 게도 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빛나간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나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러시아 단기 선교여행기를 쓰면서 한참 들떠 고양된 기분이었던 지난 주에 BNI 의 ‘영성으로 살기’ 의 과제물로 받은 여러 선각자들의 영성 생활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제는 영성 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 사람 Nana가 손자 Nathan을 Drum lesson, 태권도 lesson, 한국학교 등 시간에 맞추어 ride 해주고 보통 5시 반에 우리 집에 데려 와 저녁을 먹고 나면, 머느리 Terry 가 직장일 끝나서 6시 반경에 Nathan을 pick up 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게 일상이다.

지난 11월 16일 목요일에 “우리가 YMCA 운동가는 길에 Nathan을 집에 데려다 주마” 하고 애들 집에 가니 아무도 없다. 문 앞에서 <몇 분을 기다리다> “너 어디 있니” 하고 마땅치 않은 목소리로 아들 James에게 전화하니 20분 후에 온다고 한다. YMCA 운동 시간에 늦게 생겼다 . 나는 속으로 화가 났다. 이때 Terry가 막 도착했다. 보통 James가 집에 먼저 와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탁한 Terry가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집 사람이 Nathan을 인계할 때 자초지종을 얘기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한 마음에 시동이 켜 있는 자동차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빨리 가요” 하며 통명스럽게 집 사람을 불러 댔다. 집 사람이 YMCA 에서 돌아와 “빨리 오라” 는 내 말투 때문에 Terry의 마음이 혹 상했을까 봐 한참 전화를 한 모양이다. 나중에 들으니 James한테 “왜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느냐” 고 Terry가 많이 나무람을 들었다.

이런 잘못된 고리가 께이게 만든 것이 다 <나 때문>이었다.

왜 나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남을 포용력 있게 감싸지 못했을까!
내 급한 성격을 조금만 자제하면 그렇게 남을 당혹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걸!!
지금 공부하는 ‘영성으로 살기’ 가 <가슴에는 커녕 머리 >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집에 돌아 오는 차 속에서 <“난 아직도 멀었다”> 라고 집 사람에게 고백했다.

<그래도 그럴수록> 성자 베네딕트 의 ‘Lectio Divina’ 네가지 단계 - lectio (읽기), meditatio (묵상), oratio (구송 기도) 그리고 contemplatio (관상) 을 <다시 한번 더 되 썩고 되 새기며> 이렇게 마음에 느낀 점들을 솔직히 하나님께 사죄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Henri Nouwen 이 한가지 더한 다섯째 단계인 ‘글쓰기’ 가 바로 지금 하는 이것이로구나 하며 깊이 깨닫게 됐다.

글을 씌으로써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쓴 내용을 다시 스스로 <다짐>하며, 분명히 <실천>하게 만든다.

11월 19일 주일 예배 후 집에 돌아 오는 차에서 집 사람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 눈 질문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된 사람은 누구인지” 에 대해 답하라고 했을 때 , 성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 보다 자기는 “남편 김문소” 라고 했다. 그 이유는 50년간을 가까이에서 함께 살면서 “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실히 하는 걸 봐 왔기 때문” 이라며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마 내 스스로 자식들과 집사람에게 한 죄책감으로 막 넘어지려고 비틀대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도 가련해서 3일도 못 되어 하나님께서는 집 사람의 입을 통해 “애야, 툭툭 털고 일어나라” 고 용기를 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 다짐해 본다.

17세기 ‘로렌스 형제’ 처럼 하나님과 매 순간을 대화하는 삶이 나의 남은 삶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평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웃으시며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뵈고 싶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긍정적으로만 살아 가리라.

기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시 27:4)을 노래하며 실천해 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삶? 종교의 삶?

곽서영 집사

“그러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

A.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교만 해서 그런지, 요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 속상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수고스럽다고 뭔가 하지 말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먹고 쓴 것들에 뒷정리를 잘하지 않고 떠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적다 하고 저 사람들은 이게 많다 하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잔소리를 해야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 한 교회에 너무 오래 있었나 혹은 나이가 너무 들어 보수적이 되었나 싶네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이 교회 생활을 하면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B. 우리 모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제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이 많으니, 기도할 수 밖에요.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자매보다 100배 안타깝고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 듯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시다.

제가 요즘 매일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죽은 자가 웬 말이 많냐고...

A. 저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딪혀 돌아오는 경험을 할 때마다 잘못했다 싶어서 회개하고 고치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감동 받으시고 봉사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지기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병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사랑을 나누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엔 엄하게 욕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땐 죄인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 수록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때문에 그 분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과 기도, 봉사,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건데,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면서 주님이 미워하시던 사람처럼 변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으로 찢려도 남 탓하며 무시하게 되고요. 주님이 제게 주신 평안도 교만과 한 곳 차이로 느껴지네요. 다시 회개 해야겠어요.

기도: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시며, 내 기도를 받으시나 그것을 넘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있는 넘치는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진리가, 나와 우리 안에 새로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정광근 집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1)

3/30(금)
성금요일

깜깜하고 광활한 우주에 이토록 아름다운 별 지구를 이 곳에 놓으시고 수 십억 종의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게 우리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멋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이것만은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범죄한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 쫓으시면서도 가족을 지어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 완전히 온 천하를 물로 쓸어 버리시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형상을 만드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회복 시키고 싶어 하셨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든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셨으며 이미 장성해 충분히 자기를 재물로 삼으려는 늙은 아버를 힘으로 어찌 할 수 있음에도 묵묵히 단위에 누워 칼을 받는 이삭의 믿음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악삭빠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혼련 시키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 될 12 아들을 낳아 기르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감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버린 형제들을 모두 나무에 매달아도 누구도 뭐라하지 않을 총리 요셉. 그에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을 살리시려는 당신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은 것이라 고백하게 하며 용서하는 착한 마음을 심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수십만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엄청 난 구름을 만드시고 그 밑으로 모두를 숨기서 한 낮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곳곳에 묻혀 있던 기름을 밤새 태워서 그 춥고 어두운 광야의 밤을 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우레 같은 목소리로 여리고 성을 허무셨으며 당신이 진실로 유일한 왕이시면서 더 강해지고 잘 살수 있게 왕 달라 때 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쟁에 사망 사달라 조르는 다섯 살 아들에게 동전을 쥐어 주시듯 왕도 세워 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많은 시와 노래를 짓게 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다 풀무불에 던져 졌을 때 직접 그들을 품으시려 불 속으로 뛰어 드셨습니다.

수 없이 죄를 반복하여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파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큰 죄로 실망시켰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희생제물 삼으심으로 오히려 회복과 영원한 삶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당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진심 어린 이웃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든 삶의 순간, 순간 느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조차 당신의 위대함의 선물입니다!

기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한승희 장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전해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캔더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열일곱 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 그리고 시간에 맞춰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 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 종탑 아래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로 되었습니다. 열일곱 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위해 교회 종을 쳤던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사람도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자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 주님 저희들도 모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1-11)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도바울의 고백을 하도록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사도바울의 이 표현은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I am uniquely beloved.”

사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Jean Vanier라고 L' Arche(방주)공동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장애인들과 오래 산 후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처럼 규정합니다.

“Every Christian is uniquely beloved.”

그는 장애인들의 어두움을 늘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울러 그 안에서 피어나는 부활의 꽃 향기를 늘 맡으면서 살아 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니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uniquely beloved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백합화와 튜립으로 강단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읽은 글을 보면, 튜립은 매번 다르게 핀다고 합니다. 겨울동안 받은 상처에 따라서 피는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상처가 사랑스러움으로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바울의 사랑스러움의 시작도 그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의 죄성이었습니다. 그의 어둠으로 인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어두움은 신비한 아름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멋진 부활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고백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uniquely beloved합니다. 이유는 우리들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두움과 죄성이 주님의 죽으심을 만났을 때 신비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처럼 나타나시지 않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도바울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어두움은 사도바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디딘고 일어서라.”

우리들의 죄성과 주님의 죽으심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각자 아름다운 꽃을 피워 가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의 이웃이 특유의 꽃을 피우도록 도와 주십시오. 서로를 향해서도 말하십시오.

“나를 디딘고 일어서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최재원

표지디자인: 장지은